

## “광주·전남 하반기 경제 어둡다”

### 本社, 경제전문가 30명 설문 인프라 허약·투자 유치 부족

광주·전남지역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11면> 따라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외자자본 및 기업체 유치와 함께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통한 지역기업 육성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사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지역내 대·중소기업 CEO,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학계 등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

경제진단과 회생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지역경제에 대해 무려 22명(73.2%)이 ‘최악’ 또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답한 반면 ‘현재는 힘들지만 좋아질 것’이라거나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7명(23.3%)에 불과했다. 이는 고유가와 고원자재가, 환율불안, 정부정책 등 각종 경제적인 악재들이 향후에도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

으로 ▲인프라 등 경제기반 허약 및 기업유치·투자 부족 ▲수도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등을 꼽았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정치인 등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정책 활성화, 외자 자본 및 기업체 유치 외에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와 관련, 응답자들은 ▲자금난 및 원자재난 ▲판로 축소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과의 불화 등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광주·전남지역 전체 산업체 가운데 99%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구조적인 결핍들이 해소돼야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진 지역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미분양 대책,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제정책에 대해 70% 이상이 ‘보통’이거나 ‘미흡하다’고 평가, 위기의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가 신뢰성 있는 정책을 발구·추진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주시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는 부품소재산업→광산업→자동차산업→생활가전산업, 전남도는 관광·서비스산업→조선산업→친환경농업→생물산업 순으로 꼽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 쌀이 최고” 농협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15일 호남고속도로 서광주휴게소 상행선에서, 고향을 다녀가는 수도권 귀성객에게 전남산 식용 쌀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리먼 파산·메릴린치 매각 미국 금융가 ‘피의 일요일’

### 정부, 오늘 금융상황 점검 긴급회의

158년 전통의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모기치 사태로 촉발된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15일 중으로 파산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 때 미국 4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은 15일로 넘어서자마자 낸 성명을

통해 “자산 보호와 가치 극대화”를 내세우며 이같이 파산신청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리먼은 이어 “파산 신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15일 중으로 뉴욕 서던 지구의 파산법원에 낼 것”이

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내 금융회사들이 파산신청을 한 리먼브러더스에 7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94년 역사의 미국 최대 증권사 메릴린치가 신용위기 속에 미국 최대 은행인 뱅코브아메리카(BOA)에

전격 매각됐다. BOA는 이날 메릴린치를 약 50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메릴린치와 리먼브러더스가 사라지게 된다면 베어스턴스에 이어 6개월 만에 5개 대형투자은행 중 3개가 사라지는 셈이다.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도 이르면 15일 자산매각과 자본 확충 등의 자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과 뱅코브아메리카의 메릴린치 인수 등 미국 금융시장의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6일 오전 8시 금융상황점검 긴급회의를 갖고 국내 금융회사의 손실과 파장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벼랑 끝 농민들 “농산물 출하 거부”

### 전농 결의대회

비료·사료·농약값 인상에 이어 먼세유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지역 농민들이 농산물 출하 거부운동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연맹에 따르면 오는 19일 무안 전남도청 앞에서 농민 수 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량 주권 수호를 위한 광주·전남 농민 출하 거부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농민들이 농산물 출하 자체를 거부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농민회는 출하 거부 결의대회를 가진 뒤 전남도를 상대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4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증액 ▲각종 농기계 지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구성 ▲친환경 농업의 문제점 개선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시·군별로 해당 지역 도의원 과 간담회를 진행, 2009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민회는 다음달 중순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이 나락 야적을 시작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산물 출하거부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며, 나락 생산물량의 50% 이상 출하를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스페인 사라고사 박람회 폐막

# “이제는 여수다”



### BIE 旗 넘겨받아 ... 준비 본격화

스페인 사라고사 박람회가 3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4일 폐막함에 따라 차기 박람회인 ‘2012여수 세계박람회’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장승우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과 오현섭 여수시장은 이날 후안 카를로스 1세 스페인 국왕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라고사 박람회장 내 콩그레스 팰리스에서 열린 폐막행사에서 라퐁 세 계박람회기구(BIE) 의장과 빈센테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으로부터 BIE 기(旗)를 넘겨받았다. BIE 기를 인수함에 따라 대한민

국은 차기 박람회 개최국으로서의 지위가 공식화됐으며,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BIE기를 넘겨받은 장 위원장은 “연내에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여수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리우 환경선언 2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기념해 ‘여수 선언’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도 “박람회 유치 당시 여수 시민의 뜨거운 열기와 감동을 재점화해 국제해양관광 레저도시로 급부상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며 “사라고사의 영광을 여수까지 기릴코 이어갈 수 있

도록, 이제 4년도 채 남지 않은 박람회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BIE기 인수를 기념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20일 오후 5시30분께 여수진남경기장에서 여수박람회 조직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해 ‘2012 세계박람회 BIE기 전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